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01호 【루계 제23253호】 주체99 (2010) 년 10월 28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공산당 료녕성 단동시위원회 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료녕성 단동시위원회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중국공산당 료녕성 단동시위원회 서기인 대옥림단장이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인도네시아에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인도네시아 허까다하인쇄 및 출판사에서 7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2010년 10월 10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65년전 이 력사적인 날에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일뿐아니라 김정일각하의 혁명활동력사이기도 하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조선로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함과 업적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김정일각하의 력사적인 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출판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과 기쁨으로 간주한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여러 단위에 건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가 여러 단위에 건립되였다.

안변군 상음협동농장, 연탄군 장운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일념안고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일떠세웠다.

흥남제약공장에 건립된 모자이크벽화에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다.

연탄군 읍에는 혁명의 성산에 오르시여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백두산에 오르시여》가 건립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풍요한 농장벌을 바라보시며 환히 웃으시는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가 평성시 백송리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세워졌다.

원산시, 함흥시 회상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보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일떠세웠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는것은 우월한 사상교양방법인 동시에 위력한 선동방법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에는 우리 당이 바라는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성격이 있고 대중이 따라배워야 할 정신세계의 높이가 있다. 긍정적모범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사회적분위기가 확립될 때 대중의 정신력이 앙양되고 대고조의 승리가 앞당겨지게 된다.

시대의 전형들을 찾아내고 긍정적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의 나날에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영웅적투쟁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많이 발휘된것은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는것을 사상교양사업의 기본방법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가 차넘치고 어디서나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지혜를 다 바치고있으며 이 과정에 긍정적모범들이 수많이 발현되고있다. 여기에는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창조와 헌신의 땀을 흘리며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아름다운 소행들도 있고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감동적인 사실들도 있으며 불꽃튀는 대고조격전장들에서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오는 영웅적위훈들도 있다. 이런 모범들이 널리 일반화될 때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킬수 있고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내세우며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사상교양사업의 기본방법의 하나로 틀어쥐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시대의 선구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열렬한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장서 실현해나가는 선구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는 대고조시대 선구자들의 정신세계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시대적모범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영웅들과 공로자들처럼 삶의 순간순간을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으로 빛내여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려는 신념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꽉 차넘치게 하며 누구나 시대의 선구자들의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조국의 밑뿌리가 되려는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도록 하여야 한다. 그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시대의 미풍선구자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모두가 그들처럼 신념과 의리로 당과 수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며 긍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고 평가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평범한 사람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시대적본보기로 적극 내세워주시며 우리 인민의 대고조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모범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평범한 일로 여기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우리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속에서 높뛰는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줄 알아야 하며 그 어떤 명예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자그마한 긍정적인 소행도 제때에 찾아내고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기적창조의 지름길도 밝혀주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발기들을 적극 지지해줌으로써 긍정적모범이 더 많이 창조되고 온 집단이 선구자대오가 되도록 추동하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는데는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통하여 모범적인 사실들을 소개선전하거나 강습, 경험교환을 조직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이 있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러한 형식과 방법들을 현실적요구와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일상적으로 해야 하며 한번의 정치사업을 해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생동하고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여야 한다. 현장방송과 직관선동을 비롯한 각종 형식의 선전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선전선동내용을 참신하고 설득력있는 긍정자료들로 준비하고 하나의 선전을 해도 대중이 긍정적모범의 주인공들처럼 살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울수 있게 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모범적인 소행들이 높이 발양되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잘 조성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긍정적모범의 주인공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제때에 잘하여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감과 영예감을 간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시대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하는데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잘 알려주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시대의 전형, 시대의 영웅들이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승리자의 기세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세차게 타오르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

각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결의목표를 세우는 목적도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자는데 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결의목표를 잘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것만큼 결의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모든 힘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수행에 학부의 모든 힘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조직에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자료들을 수많이 게시하여놓고 교직원, 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체현자로 키워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학부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난 10년간 지리정보체계, 국토계획콤퓨터설계 등 수많은 새 과목을 개척하고 수십개 과목의 원격강의안을 완성하였으며 최근년간에는 환경관리정보체계 등 500여건의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도입하여 지구환경과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정보화하였다. 학부에서는 또한 자질향상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교원, 연구사의 95.2%에 해당하는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강좌사무실, 교실, 실험실습실들을 잘 꾸리고 청사주변에 3 0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관리를 잘하였다.

덕성탄광 5갱 당조직에서는 결의목표수행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갱에서는 선전실과 중대교양실들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자료들과 20여점의 당의 구호들을 게시하여놓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탄부들속에서 주변살림집에 뜻밖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갱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앞선 발파방법과 수평분층식채탄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굴진,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기본굴진, 준비굴진을 충분히 선행하였으며 동발회수, 전차전동기축목메달 등 40여건의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받아들여 해마다 수천공수의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채탄공 한사람당 석탄생산량을 늘여 지난 10년간 해마다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또한 갱청사와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꾸리고 갱주변에 여러 정보의 새땅을 개간하여 여러가지 작물을 심고 잘 가꾸어왔으며 염소와 토끼를 많이 길러 탄부들의 후방공급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동흥산은하피복공장 당조직에서는 공장구내와 공공장소들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자료들을 갖추어놓고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으며 종업원들속에서 많은 지원물자들을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고 영예군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미풍이 발휘되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지휘체계와 행정업무사업을 콤퓨터화하고 생산능력을 2배로 높이였으며 12종에 300여개의 각종 지구들을 창안제작도입하여 지난 6년간 생산계획을 해마다 평균 116.2%로 넘쳐 수행하였을뿐아니라 자투리천으로 어린이옷을 비롯한 30여종의 8월3일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다.

백두산혁명전적지 삭도관리소 당조직에서는 사무실과 청년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들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자료들을 직관 및 카드화하여놓고 종업원들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켜가는 초병답게 살며 일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속에서 선군시대 공로자가 배출되고 충성의 당세포의 영예도 지니게 하였다. 관리소에서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지상궤도식삭도와 공중삭도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인차레루안내홈을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8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으며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엄혹한 자연환경속에서도 9개의 공중삭도철탑과 1 200여m의 지상궤도식삭도로반, 백두역과 향도역, 기계조종실에 대한 보수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삭도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20여년간 수만회의 삭도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수백만명의 답사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흑령탄광,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검덕갱, 명천피복공장 등 많은 단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홍

유망한 유용광물매장량 확증

량강도탐사관리국에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량강도탐사관리국의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이 새로운 유망한 광체를 찾아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운 광체는 품위가 대단히 높고 매장량이 풍부하다.

이 광체를 찾아냄으로써 도탐사관리국에서는 광상의 지질광상학적특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는 유용광물매장량을 확보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을 캐내자면 먼저 어디에 어떤 자원이 얼마나 매장되여있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량강도일대에 유망한 유용광물자원이 매장되여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도탐사일군들에게 집중적인 탐사를 벌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탐사관리국에서는 탐사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지질조사사업을 앞세워 탐사구역을 정확히 확정하고 예비 및 세부탐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관리국산하 남사강지질탐사단 조사중대의 탐사대원들은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몸바칠 애국의 열의를 안고 북방의 험한 산발과 계곡을 오르내리며 지질조사에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치였다. 그 과정에 이들은 새로운 광체를 찾게 되였다.

조사중대 전투원들의 성과에 고무된 시추중대의 탐사대원들은 조국의 재부를 더욱 늘이게 된 긍지와 보람을 안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시추기를 수리보수하고 시추굴진의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준수하면서 탐사의 속도와 효률을 높였다.

땅속의 보물을 남김없이 찾을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겨안은 갱도굴진중대의 탐사대원들은 암석급수별에 따르는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발파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갱도굴진을 련속 들이대였다.

탐광중대의 탐사대원들도 지질도량과 지질우물파기작업을 부단히 따라세웠다.

도탐사관리국 해당 부서의 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남사강지질탐사단 탐사대원들이 찾아낸 결과에 기초하여 수많은 지질자료들과 도면들을 종합분석하고 현장지질조사작업과 실험분석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광상의 지질도를 새롭게 작성하고 광체의 모양과 크기를 정확히 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자원개발지도국에서는 해당 일군들을 내려보내여 현장기술자들과 기술합평을 실속있게 하여 탐사구역의 확정과 탐사설계완성 등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유용광물매장량을 과학적으로 확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오늘의 보람찬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도탐사관리국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특파기자 전철주

살림집골조공사 적극 추진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혁신적인 소식들이 연방 전해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건설련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기본건설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로력과 자재, 자금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건설의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창조된 건설물들이 실제적으로 나라에 리익을 주고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수도의 살림집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거리들을 돌아보시면서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시공단위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살림집골조공사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백수십세대에 해당한 다층살림집골조를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골조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와 자재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혼합기와 권양기, 골재를 비롯한 많은 량의 건설물동을 제때에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부대안의 김광남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혼합물생산과 철근가공에 박차를 가하여 골조콩크리트치기에서 날마다 새 기록을 세워나갔다.

골조공사를 끝낸 소식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건설련대가 맡은 고층살림집건설장에서도 전해지고있다. 련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선군청년전위의 기개와 용맹을 떨치며 벽체와 층막, 계단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이들은 얼마전 련대가 맡은 살림집골조의 마감층에 승리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였다.

조선인민내무군 김대성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골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모범을 보이였다.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길이가 백여m나 되는 덩지큰 다층살림집건물을 구릉지대에 일떠세워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일체식공법과 층막부재에 의한 골조조립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살림집골조공사를 손색없이 마무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단위들에서 골조공사를 끝낸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아래 허길수소속부대와 조선인민군 리완식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총공세의 불길높이 살림집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창섭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도 자체의 벽돌생산기지를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골조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하정길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모든 건설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부대가 맡은 여러동의 다층살림집골조를 동시에 일떠세우는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를 발휘해나가고있다.

륙해운성과 해사감독국건설련대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돌격대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골조공사속도를 부쩍 높여 승리의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선군시대 건설자들의 억센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화차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차량수리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전령병의 한생을 영광속에 빛내여주시여

항일혁명투사 전문섭동지가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과 고귀한 은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시기에 혁명의 사령부를 한몸바쳐 보위해나섰던 경위대원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경위중대에 망라된 대원들은 모두 나의 생명의 은인들이였고 친위전사들이였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꼽아가시며 내세워주신 항일의 경위대원들속에는 수령님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전문섭동지도 있다.

전문섭동지는 항일의 나날에도 해방후에도 한생을 경위대원으로서 백두산3대장군의 호위전사로 삶을 빛내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생을 경위대원으로 삶을 빛내인 전문섭동지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문섭도 빨찌산답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충실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전문섭동지는 오늘도 수령결사옹위에서 가장 충직했던 항일의 영웅전사로 빛나고있는것이다.

불굴의 친위전사로 키워주신 은혜로운 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은 동서고금에 없는 락천가들의 집단이였다고 하시면서 전문섭동지가 지닌 락천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문섭이도 외형을 보면 조용하고 얌전해보이지만 실상은 락천가입니다. 그는 혁명군에 입대할 때 자기 부모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나를 기다려주십시오, 무산혁명이 승리하고 조국이 독립되는 날 이 아들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제를 쳐부신 다음 자동차를 타고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전문섭의 결의야말로 얼마나 엉뚱하고 량만적인것입니까.》

전문섭동지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던 때의 감동깊은 일화가 있다.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압록강연안일대에서 일제침략자들을 격멸하는 전투를 진행할 때마다 장백현과 국내에서 유격대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수없이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에 있은 일을 회고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입대지망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 재미나는 일도 많이 생기였다. 한번은 얼굴이 가마잡잡한 더벅머리소년이 불에 폭 젖은 바지를 입고 우리한테 찾아와 형의 원쑤를 갚겠다고 하면서 부대에 받아달라고 떼를 썼다.》

소년은 자기 맏형이 청소년야학을 지도하다가 유격대에 밥을 해준것이 탄로되여 경찰놈들에게 학살되였고 둘째형은 보천보전투직전에 김일성장군님 부대에 입대하여 싸우고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도 혁명군을 찾아왔다는것이였다. 그 더벅머리소년이 바로 전문섭동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문섭동지를 한동안 유심히 훑어보시다가 웃음을 지으시며 그에게 롱으로 마른 옷을 입고 오는 청년들도 미처 다 입대시키지 못하는데 너처럼 젖은 옷을 입고 온 장난꾸러기들이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고 하시였다.

순간 전문섭동지는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가 젖은 바지를 입고 온건 어머니탓이라고 하면서 그 사연을 위대한 수령님께 아뢰였다.

전문섭동지가 마을에 온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너는 아직 어려서 못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아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바지를 물함지에 잠그어놓았다. 단벌바지가 물에 젖어 입을것이 없게 되면 아들이 유격대를 따라가지 못하리라고 타산했던것이다.

그러나 혁명군에 입대할수만 있다면 벌거숭이가 되여서라도 백두산까지 한달음에 뛰여갈 마음의 준비가 되여있던 전문섭동지는 이른새벽에 물함지에서 바지를 건져내여 물을 짠 다음 그대로 걸치고 떠나려 했다. 그제서야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격대입대를 허락하게 되였다.

그날 너무도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는 전문섭동지를 보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격대에 가거들랑 아무쪼록 김일성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고, 사내대장부답게 용감하게 싸워서 강도 일제놈들을 쳐부시고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우리는 그날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당부하였다. 그때 전문섭동지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부모님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나를 기다려주십시오, 무산혁명이 승리하고 조국이 독립되는 날 이 아들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의를 다지고 항일대전에 나서게 되였다. 이렇게 1937년 5월 유격대에 입대하여 8련대 1중대에서 싸우던 전문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그해 11월부터 사령부경위중대에서 활동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문섭동지는 영광스럽게도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안녕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 되였다.

전문섭동지가 열백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켜가리라는 맹세를 마음속으로 거듭 다지면서 경위대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1938년 8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전국적판도에로 확대하며 국내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국내깊이 신흥지구와 양덕지구에 진출하게 되시였다. 그때 전문섭동지도 경위중대 대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가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전문섭동지는 국내의 위험한 적구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는 걸음걸음 적의 삼엄한 경계망을 헤치고 행군할 때면 위대한 수령님께 다문 얼마만이라도 안전한 길을 보장해드리려고 험한 벼랑도 남먼저 톺아올랐고 앞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을 이쪽저쪽으로 갈라놓기도 하면서 맨앞에서 길을 열어나갔다. 전문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휴식하실 때면 숲속에 이상이 없는가를 경각성있게 살피였으며 대오가 숙영할 때에는 스스로 온밤이 지새도록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주변을 수색하군 하였다. 그리고 낮에는 또다시 행군대오의 앞장에 서서 막아서는 덤불을 헤치며 길을 개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행군하시다가 전문섭동지가 보이지 않으면 《문섭이, 어디 있어?》라고 찾으시였다. 그러면 앞장에서 길을 열어나가던 전문섭동지가 덤불속에서 우뚝 솟아오르며 《사령관동지, 제 여기 있습니다.》하고는 벌씬 웃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럴 때마다 나어린 경위대원의 충직성이 헤아려져 가슴후더워하시였다.

참으로 항일의 그 나날 우리 수령님은 전문섭동지에게 있어서 사령관이시기전에 자애깊은 어버이이시고 다심한 스승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문섭동지가 힘겨워할 때면 종종 그의 어깨에서 배낭과 기관총을 벗겨 자신께서 친히 메고 가시면서 《자, 빨리 걸으라구.》라고 재촉하시며 행군길을 다그치기도 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던 어느날이였다.

며칠째 낟알구경을 하지 못하고 검질기게 따라오는 적들과 몇차례의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난 대원들은 휴식명령이 떨어지자 털썩털썩 눈우에 눕더니 어느새 모두 잠들어버렸다.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혹한속에서 모진 굶주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버리면 다시는 일어날수 없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오는 추위와 눈속에 묻혀 전멸될수 있었다.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히 대원들을 깨우기 시작하시였다.

대오의 앞뒤로 오가시며 대원들을 깨우시던 수령님께서는 전문섭동지앞에 이르시자 《문섭이! 문섭이도 잠들었나?》라고 하시며 그를 흔드시였다. 잠결에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고 친근한 음성을 듣게 된 전문섭동지는 얼결에 일어나려고 했으나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 일어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곁에 앉으시며 《몹시 힘들지?》하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얼굴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면서 이런 때 맥을 놓으면 아주 주저앉고만다고, 이 고비를 이겨내야 조국으로 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문섭동지에게 요즘 조직에서 무슨 분공을 받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생활을 락천적으로 조직할데 대한 분공을 받았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그래, 생활을 락천적으로 조직할데 대한 분공을 받았단말이지. 거 아주 중요한 분공을 받았구만.》라고 하시며 그를 대견히 바라보시다가 의미깊은 어조로 《문섭동무,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분공을 나와 함께 집행해볼가.》하고 말씀하시고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였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

전문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노래를 불렀다. 뒤이어 주저앉았던 대원들도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전문섭동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자, 동무들! 우리모두 한바탕 춤을 춥시다.》라고 웨치며 있는 힘을 다 모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그는 지휘관들과 잠기운을 가시지 못하고있는 대원들의 손을 잡아 춤판으로 끌어들이였다. 그리하여 모두가 떨쳐일어나 어깨를 들썩거리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눈우에서 춤판이 펼쳐지게 되였다.

한바탕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 대원들은 새 힘이 솟는것만 같았다.

이렇게 전문섭동지는 락천가였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말이 없고 과묵한 성미였다. 그러나 반면에 노래와 춤을 즐긴 락천가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자주 노래경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문섭동지는 경위중대 선수로 자진하여나가군 하였다. 한번은 누가 노래를 많이 알고 잘 부르는가 하는것을 겨루는 경연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전문섭동지는 자진하여 경위중대 선수로 나가 단연 1등을 하여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함께 손목시계를 상으로 수여받는 영예까지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락천가인 전문섭동지를 더욱 굳게 믿으시고 그를 사령부전령병으로 자신의 몸가까이에 두시고 불굴의 친위전사로 자라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전문섭동지가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의 추천에 따라 입당하게 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그를 몸가까이 불러 입당을 축하해주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섭동무는 오늘부터 사령부에서 전령병의 사업을 맡아주어야 하겠소.》

순간 전문섭동지는 뜻밖의 일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어망결에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사령관동지! 제가 어떻게 전령병의 어려운 사업을 맡아할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 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 자신이 없는가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신심을 안겨주시며 문섭동무, 힘써 배우면 무슨 일이라도 다할수 있소, 걱정하지 마오, 문제는 결심이 중요하오라고 하시면서 전령병의 임무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전문섭동지는 이때부터 조국해방의 날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전령병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와 륙과송전투, 대마록구전투와 홍기하전투를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사를 빛내인 수많은 대소전투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더듬으실 때면 그처럼 간고하고 준엄했던 길우에 충정의 자욱을 남긴 전문섭동지를 자주 추억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해에 항일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신께서 끼니를 번지지 않고 싸울수 있은것은 전령병이였던 전문섭동무가 항상 비상미를 가지고 다니다가 식사를 보장하였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전문섭동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령관동지께 강낭밥을 대접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흰쌀과 기장쌀, 좁쌀 등을 구해서 항상 비상미로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어버이수령님께 때식을 보장해드리군 하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항일의 나날 자신께 지극한 정성을 다 바친 그의 공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전문섭동무가 키가 크지 못한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자신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시켰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1977년 4월 어느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후 황화전자부근전투에서 적들과 싸우던 때에 전문섭동지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대하여 추억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때 전문섭이와 황순희가 나를 결사적으로 보호해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할바령회의후 10여명의 사령부직속 대원들을 이끄시고 연길방향으로 행군하시였다. 그때 행군대오에는 전령병이였던 전문섭동지도 있었고 최현동지에게 소할바령회의방침을 전달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가는 황순희동지도 있었다. 대오는 행군하다가 황화전자부근에 이르게 되였다. 거기에는 넓은 사득판이 펼쳐져있었다. 사득판가운데의 큰 물도랑에는 외나무다리가 놓여있었다. 사득판을 지나가야만 그 너머에 있는 목적지로 행군해갈수 있었고 그러자면 외나무다리를 건느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외나무다리 건너편에는 적이 매복해있을수도 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나무다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날이 어두워질무렵 맞은편쪽에서 무슨 불빛이 번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불빛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적들이 눈치채기 전에 감쪽같이 외나무다리를 건너갈 결심으로 대원들에게 출발명령을 내리신 다음 한명한명 손잡아 외나무다리를 건너보내시였다. 맨나중에 다리를 건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풀숲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갑자기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기관총소리가 나자 어느 사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온 전문섭동지와 황순희동지는 수령님을 호위하면서 적의 매복권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모지름을 썼다. 그런데 외나무다리는 건너왔지만 수령님께서 서계시던 그 풀숲은 황소도 통채로 삼켜버린다는 사득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깊은 수렁에 빠질수 있었고 게다가 적의 총알이 비발치듯 하였으니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였습니다.》

적의 기관총탄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주변에 사정없이 날아와 사득판의 흐물흐물한 수렁과 듬성듬성 있는 풀숲에 우박처럼 쏟아져내리며 꽂히였다. 참으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온 민족이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따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상에 위험이 닥쳐온 그 순간에 초조와 불안에 휩싸인 전문섭동지는 앞이 캄캄하였고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더구나 이때 먼저 외나무다리를 건는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대로 멀리 큰길쪽으로 빠지고 수령님곁에는 전문섭동지와 황순희동지밖에 없었다.

심장이 멎는듯 한 긴장감에 가슴을 옥죄이고있던 그들은 비장한 각오로 한치의 앞도 가려볼수 없는 어둠속을 헤고 한걸음한걸음 사득판의 함정을 헤쳐나갔다. 여러번 이곳 사득판을 지나다녀보아서 사람이 지나갈수 있는 곳을 좀 알고있은 황순희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팔을 잡고 앞서나가면서 수령님께서 안전하게 가실수 있도록 길안내를 하였다.

전문섭동지도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득판의 수렁속에 뛰여들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발자국도 헛디딜세라 부축해드리였고 적기관총탄알이 비발칠 때면 탄알이 날아오는쪽을 자기 몸으로 막아나서며 수령님을 보위하였다.

이렇게 그 아슬아슬한 사선의 고비를 넘기며 위험한 사득판에서 빠져나왔을 때였다. 이번에는 앞뒤에서 적들이 달려들었다. 어둠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바싹 접근하고있는 일제군경놈들을 발견하게 된 전문섭동지는 《사령관동지! 적들이 앞뒤에서 달려듭니다. 내가 놈들에게 수류탄벼락을 안기겠으니 옆에 있는 숲속으로 빨리 빠져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는 두손에 수류탄을 뽑아들고 이놈들아 덤벼들테면 덤벼들라고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련달아 터지는 수류탄의 폭음과 함께 술한 놈들이 죽어너부러지며 아우성을 쳤다.

바로 이러한 때에 먼저 큰길쪽으로 빠졌던 강위룡, 최인덕동지를 비롯한 기관총소대 대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이 걱정되여 달려와 놈들을 쓸어눕히였다.

이렇듯 전문섭동지는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야 했던 항일의 나날 한두해도 아닌 근 10년동안이나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한 경위대원으로서 한몸이 그대로 불사신이 되고 육탄이 되고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신변안전을 굳건히 보위함으로써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항일혁명투사로서의 빛나는 생의 흔적을 남기였다.

수령님 아끼고 사랑하신 로투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정초의 어느날 항일의 나날에도 해방후에도 한생을 경위대원으로서 백두산3대장군의 호위전사로 삶을 빛내인 전문섭동지의 다함없는 충직성에 대하여 추억하시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항일혁명투사들가운데서 전문섭동무를 제일 믿고 아끼고 사랑하시였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도 항일의 그날처럼 전문섭동지를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수행하는 영광을 지니였던 전문섭동지가 해방된 조국땅에서 수령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갑산군에 파견되여 사업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20년만에 밟아보는 조국땅에서 잠시 피로를 푸는 일도 잊으시고 첫 임무를 받고 각지에 파견되는 김책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출발차비를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피시며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는 친히 역에 나오시여 바래워주시였다.

기적소리가 높이 울리는 역두에서였다.

항일의 나날 누구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며 혈전만리를 헤쳐온 전문섭동지는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며 눈물로 얼굴을 적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문섭동무는 전령병으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내곁에 있다가 이번에 머나먼 곳에 가서 혼자서 사업하게 되니 누구보다 더 섭섭할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산에서 싸우던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제 나라, 제땅인데 나를 만나고싶고 또 그리울 때면 아무때나 자동차도 타고 기차도 타고 올수 있고 전화도 걸수 있으니 너무 섭섭해말라고 하시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이 믿음,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갑산군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전문섭동지는 그후 한 인민군부대의 련대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1950년 11월 초순,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며 부산가까이 마산계선의 최전방에까지 나갔다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된 후 최고사령부와의 련계가 끊어진 한 련대장의 신변에 대하여 걱정하고계시였다. 그가 전쟁전에 독립기계화련대의 련대장으로 사업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반공격명령을 높이 받들고 부대와 함께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며 남진의 길에 올랐던 전문섭동지였다. 그때 일부 일군들은 최고사령부와 련계가 끊어지자 그가 희생된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락엽이 날리는 늦가을의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전문섭동지와 련대의 전투원들을 생각하시였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혁명가의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 전문섭동지에게 있어서 살아서 떨어질수 없고 죽어서도 잊을수 없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품이였다. 하기에 그는 련대의 모든 군인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끌고 이중삼중의 적포위망을 뚫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북으로의 영웅적인 행군을 계속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식을 몰라 안타까이 걱정하던 전문섭동지가 적후에서 돌아오자 고산진의 최고사령부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문섭동무, 수고했소, 수고했소.》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깨를 몇번이고 쓸어만지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여 안색을 흐리시며 《후퇴기간 고생이 많아서 그런지 몸이 몹시 축갔구만.》라고 말씀하시였다.

적후에서의 수천리, 전략적인 후퇴의 나날 그렇게도 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 전문섭동지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바라보시다가 후퇴전에 진주에서 미군땅크부대와 전투를 하다가 부상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때문에 아직 고생하는것이 아닌가고, 왜 그렇게 몸이 못쓰게 되였는가고 심려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1차진공때 동무네 련대가 마산계선에까지 진격해나가면서 여러 전투들에서 잘 싸운 전투보고를 받았다고, 적후의 어려운 정황에서도 련대의 대원들을 다 인솔하고 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한것은 정말 잘하였다고 하시며 그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1월초 전문섭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사단장의 책임적인 사업을 맡겨주시였으며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여주시여 그가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게 하시였다.

전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한 인민군부대의 책임적인 일군으로, 조선인민군 상장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던 전문섭동지는 그후 로년기에 이르기까지 20여년동안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항일의 그날처럼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옹호보위하는 무거운 중책을 맡아 수행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전문섭동지가 조선인민군 대장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사업하도록 하시는 높은 신임을 베풀어주시였을뿐아니라 70살이 지난 그에게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도록 변함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항일의 로투사인 전문섭동지에게 베푸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임과 육친적인 사랑은 그 크기와 깊이에서 한량이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문섭동지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금시계를 수여하여주시고 두개의 김일성훈장도 수여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항일의 나날부터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그에게 공화국2중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믿음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문섭동지의 건강에 대하여 못내 걱정하시며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느해 9월이였다.

전문섭동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초기부터 그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무렵 그를 거듭 만나주시고 병은 제때에 고쳐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치료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문섭동지의 병을 하루속히 완쾌시키기 위하여 그가 안해와 함께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받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문섭동지가 외국으로 떠나는 날에는 친히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어떤 일이 있어도 병을 고치고 와야 한다고, 조급하면 병을 고칠수 없으니 마음을 푹 놓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만약 그 나라에서 완쾌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더 치료를 받고 완전히 병이 나은 다음에 와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런 크나큰 사랑과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전문섭동지는 마침내 병을 털어버리고 완치된 몸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이렇듯 항일의 로투사 전문섭동지에게 베푸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은정깊은 사랑은 세월과 더불어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문섭동지가 인생말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항일혁명투사들가운데서 제일 믿고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한 항일의 로투사로 내세워주신 전문섭동지는 오래전에 우리곁을 떠나갔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월이 흘러도 전문섭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그의 다함없는 충직성에 대하여 잊지 못하시며 자주 추억하고계신다.

지난해 11월에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문섭동지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데 대하여 추억하시다가 그는 수령님과 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였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혁명전사가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부터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최대의 영광이고 가장 고귀한 평가였다.

전문섭동지는 비록 우리곁을 떠나갔지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추억속에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했던 항일의 영웅전사로 오늘도 영생하고있다.

최 창 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윈

아슈가바뜨

오스트리아공화국 련방대통령

하인츠 피쉐르각하

나는 국경절을 맞는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오스트리아공화국의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2010)년 10월 25일 평 양

뚜르크메니스딴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뚜르크메니스딴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2010)년 10월 27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단마르크왕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피터 리숄트 한쎈 주조 단마르크왕국 특명전권대사가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단마르크왕국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으로

평원군 원화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발휘하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농장원들이 모인 기회에 항일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을 유인하신 홍기하전투이야기, 위기일발의 순간에 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시며 적들에게 명중탄을 안기신 대사하치기전투이야기를 실감있게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 농장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받들어갈 결의를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한 우 일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린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어느 탄광, 어느 막장에 들려보아도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에서는 9월부터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석탄생산량을 훨씬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거세찬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막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그 기세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화풍, 룡림, 립석탄광의 생산전망을 여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탄광들에서 굴진을 앞세워 올해전투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이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탄광들의 갱, 막장들에 내려가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화풍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면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탄광에서는 배수능력을 높이는데 력량을 집중하여 전망이 좋은 채굴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다. 룡림, 립석탄광에서는 석탄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넓은 채굴구역을 형성하고 채탄작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와 탄광의 일군들은 해당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필요한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는 신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앞서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찾아내고 모자라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연풍탄광에서도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조건이 좋은 개소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예비채탄장을 늘이는 동시에 현행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앞서나가고있다.

청남탄광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실정에 맞는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수많이 창안도입하여 석탄생산을 늘이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중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조직하고있다. 이곳 탄부들은 남들이 백걸음, 천걸음 걸은것을 한걸음에 뛰여넘을 비상한 각오를 안고 지하막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태향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높은 각오를 안고 모두가 떨쳐나 갱, 막장들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헤치며 계속 혁신을 일으켜 탄광의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고있다.

칠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탄광의 생산전망을 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올해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련합기업소 여러 보장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부속품과 자재, 기공구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 탄광들에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한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는 대단히 좋고 생산전망 또한 락관적이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대고조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강명일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

봉천탄광에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진군속도를 높이고있는 봉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이달에도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을 안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전망을 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면서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자연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이들의 전진도상에는 막아서는 난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탄광의 탄부들은 조금도 주저를 모르고 용감히 돌진하고있다.

력사적인 당창건 65돐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불리한 막장조건으로 하여 봉천갱의 어느 한 구역에서 예견치 않게 물이 차올랐다.

갱의 탄부들이 뽐프를 설치하고 순간도 쉬임없이 물을 퍼올렸지만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갱이 그날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갱으로 달려온 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이렇게 호소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고 결의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동무들 나를 따라 앞으로!》

일군들과 탄부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갱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탄광의 일군들이 전투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어떤 일군은 동발나무를 메고 뛰여들었고 또 어떤 일군들은 탄부들과 함께 물이 차오른 막장에서 한 탄차분의 석탄이라도 더 뽑아내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돌격로를 열고 하루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였다. 탄광의 가족들도 남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지원물자를 준비하여 막장에 보내주었다. 이렇게 갱의 탄부들은 한교대에 수십t에 달하는 버럭을 처리하면서 막장을 복구하고 생산을 계속 다그쳤다.

이곳 갱의 탄부들만이 아니다. 혁신1갱과 혁신2갱을 비롯한 탄광의 탄부들은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기세드높이 현행생산과 함께 생산전망을 열기 위한 투쟁을 동시에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증산투쟁속에 신금철, 안광혁고속도굴진소대에서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고 그뒤를 따라 탄광의 모든 채탄중대들과 굴진소대의 전투원들이 높이 세운 년간전투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석탄증산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열화같은 애국열의에 의하여 탄광의 석탄생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신창청년탄광 5갱 채탄3중대에서

혁신의 기상 나래치는 막장

여기는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신창청년탄광 5갱 채탄3중대 막장이다.

김진일소대 전투원들이 채탄장을 넘겨받은지 불과 반시간, 벌써 석탄을 가득 실은 탄차들이 막장을 빠져나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4대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사슬콘베아의 동음,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석탄을 받아싣고 달리는 탄차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한 이곳 채탄중대원들은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 일념으로 석탄생산을 늘이고있다.

기름진 탄벽을 단숨에 허물어낼듯 최인남, 리명길동무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손을 다그친다.

쏟아지는 석탄을 사슬콘베아로 끌어내는 채탄공들의 승벽심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마도 누가 더 높은 실적을 내는가 겨루어보자는 심산인것 같다.

교대시간이 퍼그나 흘러 수많은 탄차들이 자리바꿈을 하였지만 이들은 잠시도 쉴념을 모른다. 언뜻언뜻 엇갈리는 안전등불빛에 탄부들의 구슬땀맺힌 얼굴들이 보인다.

우리에게 중대장 박금성동무는 이렇게 말한다.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우리 탄부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몇분 안되여 또다시 생겨난 석탄무지가 사슬콘베아에 실려 춤추듯 조구로 흘러든다.

이어 줄줄이 늘어선 탄차행렬이 미끄러지듯 이들의 막장으로 들어선다.

탄부들의 얼굴에도, 전차운전공의 얼굴에도 기쁨이 함뿍 어린다.

석탄더미들이 꽉 들어찼던 조구에서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석탄이 쏟아져 탄차들에 무둑무둑 쌓인다.

이윽고 탄부들의 자랑넘친 투쟁소식을 담아싣고 탄차들이 막장을 누비며 경쾌하게 달린다.

본사기자

현장에서 찾은 예비

남양탄광 일군들

남양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긍지안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얼마전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채탄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석탄생산을 늘이도록 한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지난 3.4분기에 탄광에서는 채탄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채탄장들에 사슬콘베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었다. 그것은 탄광의 일군들이 전례없는 생산성과를 이룩한 지난해의 경험을 통하여 품은 들어도 채탄장들에 사슬콘베아를 도입하여야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느끼였기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채탄장들에 사슬콘베아를 도입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사슬콘베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미친 일군들은 현장의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방도를 탐구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동력선을 자체로 보장하는것이였다. 심부에 전개된 한개의 채탄장에 사슬콘베아를 설치하자고 해도 적지 않은 량의 동력선이 요구되였다. 그만큼 탄광의 모든 갱들에 동력선을 원만히 해결해준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일군들이 현장과 사무실로 오가며 거듭 토론을 하였으나 좀처럼 해결방도를 찾을수 없었다.

탄광의 일군들은 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풀기로 하고 어느 한 갱에 내려가 탄부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호소하였다.

一뜻깊은 올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자면 채탄작업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더 요구되는 동력선을 자체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다같이 힘과 지혜를 합쳐 방도를 찾아보자.

현장에 내려와 자기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흉금을 터놓는 일군들을 보면서 탄부들은 혁신적인 방도를 내놓았다. 그것은 콘베아의 동력선을 굽이굽이 뻗어나간 갱도를 따라가면서 늘일것이 아니라 통기갱도를 리용하여 웃수준의 갱도에서 채탄장까지 수직으로 늘이자는것이였다.

실로 책상머리에서는 찾을수 없었던 방도였다.

이렇게 되여 탄광에서는 어렵게만 생각하였던 동력선문제를 자체로 풀고 사슬콘베아를 채탄장들에 도입함으로써 생산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갈수 있었다.

이것은 탄광의 일군들이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탄광의 일군들은 채탄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굴진을 앞세워 확보탄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등 올해에 내세운 전투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탄광의 경험은 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발동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어떤 목표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덕성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면한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겨울철생산준비를 예견성있게 해나가고있다.

—남덕탄광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예견성있게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일군들은 모든 갱, 중대들을 맡고 내려가 겨울철생산준비를 잘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탄부들속에 깊이 해설선전하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탄광참모부에서는 겨울철전으로 많은 예비채탄장을 마련할 높은 목표밑에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매장량이 많은 새 채굴구역들의 조업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탄광설비들을 빠른 기일안에 수리정비하고 정상가동할수 있도록 요구되는 예비부속품들을 착실히 갖추고있다.

탄광의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면서 굴진속도를 높여 예비채탄장들을 전개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운반갱의 탄부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운반로선을 개건하고 설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있다.

그리하여 벌써 탄광에서는 여러개의 예비채탄장이 마련되고 탄차들과 전차들을 비롯한 많은 설비들이 수리정비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평양양말공장 녀자양말직장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평양양말공장에 현대적인 녀자양말생산공정이 훌륭히 꾸려졌다.

생산공정전반이 첨단설비들로 그쯘히 갖추어지고 CNC화된 녀자양말생산기지는 군민이 힘을 합쳐 일떠세운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생산기지에서는 계절에 따르는 녀성들을 위한 맵시있고 질좋은 갖가지 양말을 생산하게 된다.

평양양말공장에 새로 건설된 녀자양말직장 준공식이 27일에 진행되였다.

리태남 내각부총리, 안정수 경공업상,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녀자양말생산공정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과 평양양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애국적헌신성을 지니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현대적인 녀자양말생산공정을 일떠세운 전체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자양말생산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강력한 력량과 수많은 설비, 자재들을 보내주시면서 건설을 빠른 기간내에 끝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감사문은 강조하였다.

감사문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과 공장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모든 생산공정이 CNC화된 녀자양말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위훈을 창조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투장들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여 방대한 건축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으며 공장로동계급과 과학, 교육기관 과학자, 기술자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하부망공사, 설비제작, 종합조종체계연구 등을 성과적으로 결속한데 대하여 감사문은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현대적인 공정이 건설됨으로써 양말제품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공사를 통하여 건설자들은 당의 부름따라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감사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군인건설자들과 평양양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지배인 리승희의 준공사에 이어 직장장 김태복, 로동자 정현숙이 토론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영광과 긍지를 안고 온 나라 인민들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벅찬 시기에 평양양말공장 녀자양말직장을 준공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기업관리운영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인 공정들을 계속 완비하며 당의 은정이 깃들어있는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기대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꾸린 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새로 건설된 녀자양말직장의 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147호 주체99(2010)년 10월 1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기대와 설비들을 알뜰히 관리하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평양기초식품공장 발효간장직장
만경대닭공장 성금1직장
만경대닭공장 후보2직장
서두수발전소 3호발전소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 전기기관차 《붉은기》1호

26호모범기대영예상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
평양철도대학
보통강식료공장
두단오리공장 배합먹이직장
두단오리공장 비육1직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운전직장
함경남도해사감독처
염주고려약공장
통천군인민병원
삼천군량정사업소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
배천군 추정협동농장
청진시 송평구역량정사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제관조립직장
삼지연학생소년궁전
타조목장
인민봉사총국 운수봉사사업소
승호콩크리트침목공장
라흥철도공장 청년1가공직장
라흥철도공장 병원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 수리대대
평양기관차대 내연 604호
정주기관차대 전기기관차 《붉은기》5048호
정주기관차대 전기기관차 《붉은기》5050호
희천기관차대 전기기관차 《붉은기》514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58차전원회의가 26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녀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녀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녀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대표자로 높이 모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심의 분출이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맹조직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추대한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녀맹원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고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하여 동맹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본보기로 꾸리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녀맹조직들과 녀맹일군들이 맡은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맹원들이 인민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며 누에치기를 비롯한 좋은일하기운동, 녀맹돌격대활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며 전동맹에 강한 조직규률을 확립하고 각급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제공동전선에서 맺어진 조중친선 영원하리

새로 나온 예술영화 《형제의 정》을 보고

최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잊지 못해하는 황계광영웅을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형제의 정》(영화문학 김일성상계관인 위응용, 연출 공훈예술가 김춘송, 김현철)을 만들어 내놓았다.

어제날의 중국인민지원군 병사 황계광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조중 두 나라 인민은 무엇을 느끼고있으며 영웅은 오늘의 새 세대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며 조중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혁명가들이 물려준 귀중한 공동의 재부입니다.》

예술영화 《형제의 정》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주인공 황계광의 형상을 통하여 참다운 국제주의전사란 어떤 사람이며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지원군렬사들은 중국사람들인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희생되였을가요?

이것은 영화의 마감부분에서 백발의 로인으로 조선을 다시 찾은 황계광영웅의 동생 황계서에게 그의 손녀가 묻는 말이다.

—이 렬사는 조선사람인데 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묻혀야 했을가요?

영화의 앞부분에서 동북해방전쟁에 피를 바친 조선렬사의 분묘앞에서 황계광영웅이 제기했던것과 일맥상통한 물음이다.

반제공동투쟁의 한전호에서 운명을 함께 하여온 조중친선의 증견자들인 두 나라의 로병들이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는 의미심장한 진리를 영화는 한 평범한 중국인민지원군 병사가 참다운 국제주의영웅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깨우쳐주고있다.

수난많던 어린시절에 부모도 잃고 동생과도 생리별을 당하였던 황계광에게 있어서 형제의 정보다 더 깊고 뜨거운것은 없었다. 그러나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소박하면서도 진정어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한집안식구처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친근한 모습들을 보며 그는 정이란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사랑하는 동생의 생사조차 모르는 계광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친누이가 되여 따뜻이 보살펴준 후방녀인 신옥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지원군병사들을 구원하고 희생되는 평범한 조선녀성의 모습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자기의 모든것을 다 주고도 무엇인가 더 주고싶어하는 인간의 진정이 피줄도 언어도 다른 두 나라 사람들사이에 얼마나 뜨겁게 오고가고있는가.

어린 자식을 둔 조선의 한 평범한 어머니가 지원군병사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초등량아바이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공산당의 훌륭한 아들들이 싸우는 조선을 피로써 도와나서는 광경은 황계광에게 포화속에서 흐르는 조중친선의 정이란 어떤것인가를 잘 알게 하였다.

원쑤들의 악랄한 파도식공격으로 상감령의 고지를 일시 내주고 갱도에 들어간 지원군병사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결사전을 준비한다. 최후결전을 앞둔 그 시각 황계광에게는 적의 포화를 뚫고 련대에 중대의 긴급문건을 전달할데 대한 임무가 맡겨진다. 사실 이것은 여러해동안 헤여져 서로 애타게 찾고찾던 황계광의 형제가 항미원조의 한전선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하려는것이였다.

우리 형제앞에 눈물과 웃음이 절반씩 있다면 이 형이 다 울테니까 계서야, 넌 웃기만 하라고 하던 계광, 그리도 동생을 만날 시각을 손꼽아기다려온 그였지만 곧 고지탈환을 위한 련대의 총공격전이 있게 된다는것을 알자 주저없이 불비쏟아지는 상감령으로 되돌아간다.

련대부에 그냥 남아 동생을 만난다고 하여 그를 탓할 사람은 없었다. 만약 그때 황계광이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갈수 있었으며 번영하는 새 중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도 있었다.

동생이 련대로 오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다시금 포화를 뚫고 상감령으로 떠난 황계광용사, 과연 그의 심장속에는 어떤 숭고한 희생정신이 자리잡고있은것인가.

고지탈환전투를 앞둔 황계광의 가슴속에서는 동생에게 전하는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울린다.

《…내 이제 중조 두 나라의 정이 스민 기폭에 더운 피를 뿌리며 쓰러진다면… 사랑하는 동생아, 그것은 너를 위해 이 형이 할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이였다고 믿어다오.》

이것은 원쑤의 화점을 한몸으로 막아 진격로를 열어제낀 황계광영웅이 혁명앞에, 조국앞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도 하였다.

영웅이 최후의 순간에 그려본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 그것은 온 중국땅이 조선전선참전의 열의로 끓어번지며 형제의 나라 조선을 피로써 돕자고 한사람같이 궐기해나서던 모습이였다.

그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반제공동투쟁을 위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것을.

계급적형제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며 포화속에서 맺어진 전우의 정은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참다운 진리를 준엄한 결전의 나날에 깨달았기에 황계광렬사는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국제주의영웅으로 삶을 빛내일수 있었던것이다.

자기 조국을 지키는 심정으로 우리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하며 목숨을 바쳐 전쟁승리에 이바지한 영웅은 상감령의 황계광뿐이 아니였다. 모안영, 양근사, 손점원, 구소운, 라성교…

싸우는 조선을 그 어떤 말이나 경제적후원에 앞서 피로써 도와나선 중국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그 얼마이며 지원군병사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고 그들을 희생적으로 구원한 박재근, 안옥희녀성을 비롯한 우리의 후방인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렇듯 진실하고 헌신적인 정의 뉴대가 평화로운 날이 아닌 준엄한 결전의 나날에 이어진것이다.

포화속에서 맺어진 형제의 정, 이것은 세기를 이어 더욱 굳건히 공고발전되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의 혁명적우애의 본질이며 그 깊고깊은 뿌리이다.

바로 이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인민앞에, 시대앞에 힘있게 선언하고있는데 예술영화 《형제의 정》이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이하는 10월의 푸른 하늘에 새겨주는 커다란 사상정서적여운이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형제의 정》이 두 나라 인민들과 새 세대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는것은 또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뿌리깊은 전통과 시원에 대하여, 그 공고성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데 있다.

인류력사에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공동투쟁을 벌린 실례도 적지 않고 오랜 세월 벗으로 가깝게 지내며 신뢰와 정을 두터이 하는 친선적인 나라들도 많다. 하지만 조중 두 나라와 같이 국교관계가 이루어지기 썩 이전부터 로세대혁명가들의 공동투쟁속에서 국제주의적단결의 뉴대가 이루어지고 령도자들의 깊은 관심과 옳바른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뉴대가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나날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여올수 있었는가 하는 력사적진실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영화에서 상감령의 고지탈환전투를 앞두고 황계광을 비롯한 지원군용사들이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강한 인상을 남기며 펼쳐진다.

조선전선에 나온지 한달만에 영웅적최후를 마친 모안영렬사의 비보가 전해졌을 때 모택동주석동지가 무엇으로 그 아픔을 달래였는지 아는가고 묻는 황계광에게 7중대 정치지도원은 이렇게 말한다.

《존경하는 김일성동지를 그려봤을거요. 우리 중조 두 나라의 공동의 원쑤인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온 혈전만리에서 나눈 뜻과 정에 대해서… 동북해방작전때에도 얼마나 많은 그분의 전사들이 우리 중국을 위해 피를 바쳤소.》

항일대전의 피어린 나날들에는 물론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었는가를 두 나라 지경의 산과 강들은 똑똑히 새기고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남먼저 준엄한 조선전선으로 떠나보내던 모택동동지의 심정이 얼마나 깊고 뜨거웠던가를 우리 인민은 오늘까지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수호하는 공동의 전선에서 국제주의앞에 어떻게 충실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두 나라 인민의 력사에 기념비로 빛나고있다.

백마디, 천마디의 말이나 부피두터운 책으로도 다 전하기 힘든 가슴뜨거운 혁명적친선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는 생활의 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지원군중대장을 위해 후방녀인이 마련한 지성어린 보약때문에 처벌을 받고도 조선에 나가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폐도 끼치지 말라는것은 중국공산당의 지시라고 하면서 규률을 어긴데 대해 자책하는 황계광, 그러는 그에게 지원군병사들을 친혈육처럼 성심성의로 도와주라는건 우리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이라고 진정에 넘쳐 이야기하는 신옥희녀성…

친동생, 친누이와도 같은 그들의 정다운 모습을 눈물겹게 보면서 관중들은 로세대령도자들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적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며 뗄래야 뗄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온 조중 두 나라의 친선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영화의 첫시작에 자막으로 새겨지는 모택동주석의 명령, 수천수만의 군중이 모여 항미원조보가위국을 웨치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들, 조선전선으로 떠나는 아들딸들을 열렬히 환송하며 꽃묶음을 흔드는 중국인민들…

두 나라 인민이 한전호에서 어깨 겯고 피를 나누며 용감하게 싸운 반제공동투쟁의 나날을 추억하게 하는 화폭들을 통하여 영화는 뿌리깊은 국제주의적단결과 전투적우의의 뉴대가 있어 조중친선은 압록강의 흐름처럼 영원하고 백두의 산악처럼 굳건하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혁명적인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훌륭히 발양될수 있으며 참다운 국제주의의리를 지닌 령도자의 손길아래서만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영웅들이 대를 이어 수많이 태여날수 있는것이다.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이 혁명의 한길, 반제공동전선에서 품들여 가꾸고 마련한 조중친선의 정이야말로 제2의 모안영, 황계광을 비롯한 참다운 국제주의투사들을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라는것을 영화는 력사와 생활의 화폭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여기는 남의 나라 땅이 아니다. 형제나라 땅이다.》

황계서가 손녀의 물음에 주는 이 대답은 포화속에서 맺어지고 피를 나누며 두터워진 형제의 정, 조중 두 나라가 꿋꿋이 걸어온 숭고한 친선의 력사의 총화이기도 하다.

세기가 바뀌고 세대도 교체되였다. 그러나 반제의 한길에서 조중 두 나라 새 세대들이 물려받은 혁명의 귀중한 정신적유산은 변함없으며 형제의 정은 영원하다.

예술영화 《형제의 정》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드리는 성의있는 예술선물로 조중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더 커다란 정서적여운을 불러일으킬것이다.

리 수 정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7차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 진행

【판문점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제7차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이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먼저 지난 접촉에서 내놓았던 《천안》호침몰사건 물증들을 판문점에 가져다놓고 공동으로 검증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미군측이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군측은 우리측 제안의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저들의 《합동조사결과》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속내만 거듭 드러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검증제안을 회피해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기로 합의한 의제자체도 줴버리자는것인가, 무엇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합동조사결과》라고 떠들어대면서도 관련물증의 공동조사를 두려워하는가, 지어 판문점에 가져다놓고 공동으로 검증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고 추궁하면서 련속적인 질문을 들이댔다.

당황한 미군측은 그 질문들은 접촉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있다가 저들이 이 제안에 대답할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구차스러운 변명만 늘어놓았다.

우리측은 지금까지 진행한 7차례의 접촉에서 미군측이 보여준 태도는 《천안》호침몰사건이 우리와는 아무런 련관도 없음을 립증해준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제는 미군측이 공동검증에 응하든가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든가, 그럴 의향이 없다면 우리를 더이상 걸고들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만약 미군측이 우리의 이 마지막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우리측은 불가피하게 미국과 남조선역적패당이 꾸며낸 날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만천하에 낱낱이 까밝힐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중국공산당 료녕성 단동시위원회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는 27일 의례방문하여온 서기 대옥림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료녕성 단동시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학효비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중조친선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키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화국내각에서 2010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2010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을 위하여 27일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리태남 내각부총리, 박명철 체육상,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 체육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태남 내각부총리가 연설하였다.

그는 공화국내각의 이름으로 중국에서 진행된 2010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기상과 존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체육의 위력을 보여준 선수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선수들의 축구경기들도 몸소 보아주시고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도 현지지도하시면서 체육인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배짱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과는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고있는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 감독들이 우리식의 전술체계와 기술을 더욱 완성하며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선수들을 대표하여 리혁철이 답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경기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우리 체육인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선수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갈 일념안고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북남적십자회담 진행

【개성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북남적십자회담이 26일과 27일 개성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최성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김룡현 남조선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먼저 우리측 단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최근 북남적십자인도주의사업에서 긍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성된 내외환경은 북남사이의 인도주의사업을 더욱 활성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북남적십자단체들이 당면한 인도주의문제들을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해나가며 북남관계개선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무엇보다도 북남쌍방이 숭고한 적십자인도주의리념과 사명에 충실하는것이다.

인도주의협력사업에서는 사상과 제도, 국경의 장벽이 없으며 그것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민족들사이에도 광범히 이루어지고있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은 숭고한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고통과 불행, 자연재해의 후과를 덜어주기 위해 적지 않게 노력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전례들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인도주의사업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인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진행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수 있으며 그 결과도 좋아질수 있다.

또한 북남쌍방이 모든 문제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견지에서 풀어나가는것이다.

지난 시기 적십자인도주의사업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선도적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초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적십자단체들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져 력사적인 7.4공동성명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에는 남측 수재민들에 대한 북녘인민들의 성의있는 인도주의지원사업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시작되고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진행되였다.

6.15시대에 이르러 북남적십자인도주의사업이 활성화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크게 기여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적십자인도주의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결을 위한것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더우기 여기에 전제요, 조건이요 하는것이 끼여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북남관계가 단절된 복잡한 속에서도 지난해에 아무런 조건부없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실현시키고 우리측 령해를 불법침입한 남측 어선과 선원, 개성공업지구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억류된 남측 인원을 돌려보냈다.

그뿐아니라 올해에 들어와 북남대결이 더욱 첨예해진 속에서도 또다시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한 남측 어선과 선원들도 인차 돌려보냈다.

우리측 단장은 북과 남이 성의있는 자세와 립장에서 함께 노력한다면 적십자인도주의문제들이 얼마든지 해결될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협의해결할 제안들을 내놓았다.

우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이다.

북과 남의 수많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에게 하루빨리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주는것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6.15이후 활발히 진행되여오던 상봉이 중단상태에 처해있는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분렬의 비극적산물이고 초미의 인도주의적문제인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사업이 더이상 곡절을 겪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민속명절들을 계기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해마다 3~4차례 진행하며 이와 함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사업도 적절히 배합하여 하자는것을 제의한다.

상봉자수는 지금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쌍방이 각각 100명규모로 하며 앞으로 북남관계가 풀리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상봉회수와 상봉자수를 더 늘일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주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것이다.

현시기 북남사이에 인도주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잘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북남관계는 첨예한 대결국면에 처해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최근 여러가지 성의있는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거듭 취한것은 쉽지 않은 용단이다.

우리는 숭고한 동포애와 상부상조, 호혜의 원칙에서 북남사이에 필요한 문제들을 풀면서 인도주의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자는것을 제의한다.

또한 인도주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앞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정상화하자면 상봉장소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지금 금강산면회소는 아직 완공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관광이 중단된것으로 하여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들이 몰수, 동결된 상태이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금강산면회소를 비롯한 남측 시설들을 정상운영할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이 이미 합의한대로 금강산면회소를 비롯한 몰수, 동결된 남측 부동산문제, 관광재개문제와 관련한 당국사이의 실무회담이 시급히 개최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판문점 북남적십자련락통로를 재개하는것을 비롯한 조건과 환경조성문제도 해결되여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들은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를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해결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이다.

그러나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들을 한사코 외면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정례화문제토의만을 고집하였으며 금강산면회소의 정상운영을 비롯하여 상봉정상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들과 인도주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거부적립장을 취하였다.

나중에는 문제토의자체를 로골적으로 회피하면서 다음번 회담에서 론의하자느니 뭐니 하였는가 하면 회담개최날자도 늦잡으며 11월말로 하자고 고집하였다.

이것은 남측이 내외여론에 못 이겨 이번 회담에 나왔다는것을 말해준다.

결국 남측의 립장은 말로는 인도주의문제를 풀자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는 물론 인도주의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북남관계도 풀어나갈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측은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 추궁하면서 남측이 계속 불성실하게 나오면서 인도주의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외면하는 경우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성의있는 제안들과 조치들을 재고려할수밖에 없게 될것이라는것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북남사이의 적십자인도주의사업과 관련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현안문제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다음회담을 11월 25일에 가지기로 하였으며 장소문제는 차후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조선과 수리아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리행을 위한 2010—2012년도 집행계획서 조인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리행을 위한 2010—2012년도 집행계획서가 27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쑤헤일 하이다르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집행계획서에 수표하였다.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7일 순안구역 조중친선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 벼탈곡을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중조친선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곳 농장원들이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귀국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을 방문하였던 김춘도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이 27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친혈육의 심정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가운데는 강동탄광 부원 리정삼동무도 있다.

그는 20여년을 석탄생산에 이바지하면서 군안의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돌봐주고있다.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잘 돌봐주는것은 공민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그는 혁명과업수행으로 바쁜속에서도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솔선 맡아 풀어주고있다. 그가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위해 바친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뿐만아니라 그는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도 앞장서고있다. 탄광의 탄부들은 그러한 그를 한결같이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로농통신원 유도정

영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정당의원단대표단 귀국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국회 상원 의원인 데이비드 알톤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정당의원단대표단이 27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종혁 조선영국친선의원단 위원장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칭송의 메아리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뜻깊은 민족사적대경사로 맞이한 지금 온 겨레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참모부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숭고한 인간사랑의 화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며 자신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을 따사로운 어머니품, 어머니당이라고 노래부르고있다.

그렇듯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남녘의 인민들속에서 울려나온 칭송의 메아리가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고있다.

남녘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은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구현이고 알찬 열매이다.》, 《자주위업의 수호자이며 진보적인류의 보루인 조선로동당과 같은 위력한 당을 가지고있는것은 민족공동의 영광이다.》라고 격찬하면서 민족적자부심을 긍지높이 구가하고있다.

언제인가 서울의 한 언론인은 조선로동당의 위력에 대해 칭송하면서 《당의 참모습을 알려거든 이북의 조선로동당을 보아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모습은 거룩한 어머니의 모습이고 위대한 김정일령수의 모습이다.

김정일령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민중을 위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으며 당이 민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도록 이끌어나가신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것은 그 한사람뿐만이 아닌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위대한 당,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목소리인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도 자기의 글에서 《당은 정치의 근간이다.

당이 위대해야 정치가 위대한 법이다.

이북은 김정일령도자의 령도를 받는 가장 위대한 당을 가지고있다. 동서방의 정당사에는 수많은 당들이 명멸했지만 김정일령도자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처럼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은 없었다.

만민의 칭송과 찬탄을 받는 조선로동당의 높이는 바로 김정일령도자의 정치공적의 높이이다.

참으로 김정일령도자는 온 겨레가 우러러따라야 할 희세의 정치거장, 절세의 위인이시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칭송하였다.

돌이켜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엄혹한 시련속에서 우리 공화국이 추호의 흔들림없이 사회주의보루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수 있은것은 력사의 기적이였다.

제국주의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의 《붕괴》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고 내외의 반통일세력이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고있지만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고있으며 공화국은 세계에 우뚝 올라서고있다.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불패의 조선로동당, 제국주의반동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며 주체의 사상, 주체의 신념,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와 조선로동당을 떠나 이 모든것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도 자기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심, 민족적긍지를 북돋아주며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열렬히 칭송하고있는것 아니랴.

서울에 사는 한 재야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령도자가 위대하여 당도 위대한것이다. 북의 로동당이 격변하는 세계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도 그 어떤 로선상착오나 탈선을 모르고 승리의 곧바른 한길로 천만민중을 이끌어갈수 있는것은 바로 당의 최고수위에 세상사람들이 경모해마지 않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을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다.

이북은 지금 복잡다단한 정치파동으로 갈길 몰라 헤매이는 세계의 진보적정당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현정세의 요구와 시대가 나아갈 길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인 령도체계와 독특한 정치방식을 확립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현시대의 가장 걸출하신 김정일령도자님을 높이 모시고 있는것으로 하여 북의 로동당은 오늘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필승불패의 당으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시련이 가로막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세상에는 많은 당들이 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신뢰와 선망을 받는 당은 없다. 때문에 세상사람들은 조선로동당을 가장 위력한 불패의 당이라고 부르고있다.》

《김정일령수께서 이끄시는 로동당의 령도하에 이북은 안정과 번영, 사회주의위업의 활기찬 전진을 도모하고있다. 이것은 이남의 근로자들이 주인되고 잘사는 민주사회의 건설을 담보한다.

멀지 않아 통일조국의 새 아침이 밝아올것이다.》

이것이 조선로동당을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며 민족의 밝은 래일을 확신하는 남녘겨레의 열화와 같은 칭송의 목소리이며 드팀없는 신념인것이다.

남녘겨레들이 확신하는것처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승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진정한 어머니의 품

우리 인민은 광폭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을 따사로운 어머니품,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남녘겨레들도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북민중은 조선로동당을 가리켜 어머니당이라 부른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사회성원들의 정치적생명과 삶의 보호자이고 요람이기때문이다.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고 민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당은 이 세상에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다.》

그의 이 말속에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삶과 행복의 보호자, 어머니당으로 되게 하신 위대한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민중속으로! 이것은 이북의 당과 정권의 가장 보편화되고 생활화된 모습이며 이북식민중사회가 낳은 특유한 풍경이다.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민중만세, 민중제일을 선언한 위대한 철학이다.

이북은 이 독특한 민중우선사상을 초석으로, 기둥으로 하고있다. 그를 바탕으로 하여 당과 정권, 제도가 서있다.

그래서 로동당은 향도자이면서도 민중을 자식처럼 돌보는 어머니가 된다.

이북민중은 력사의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를 생활로, 생명으로 새겨안았다. 민중이 나라와 정치의 주인, 경제의 주역으로 되고 문학과 예술의 창조자인 동시에 향유자로 되고있는 그 좋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여기는 이북민중이다.》

대구에서 살고있는 한 재야인사는 《세상에는 조선로동당처럼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시종 민중중시의 정치를 펼치여 민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당은 없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존엄을 끝없이 빛내여주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격찬하였다.

인류정치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펼치시여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칭송과 격정의 목소리를 터뜨리는 남녘겨레들,

인민을 위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당을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남녘의 민심은 위대한 선군태양의 품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살려는 강렬한 의지로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남조선의 한 종교인은 《위대한 인간사랑의 정치로 우리 민족모두를 지상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애쓰시며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은 바로 우리 민족운명의 수호자이시다.

아이들이 자기를 품어주는 어머니품을 찾는것처럼 백성들은 자기를 품어주고 지켜주는 령수를 찾기마련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라 할것없이 영명한 김정일령도자님을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민족운명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격조높이 웨치였다.

김현철

불레찐 《통일》 10월호 발행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불레찐 《통일》 10월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모시였다.

불레찐은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의 날》이라는 표제밑에 특집하였다.

불레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당창건의 기초를 마련하시여 해방후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신데 대해서와 조선로동당의 마크를 전체 근로대중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게 마치와 낫과 붓으로 정해주신데 대해 지적하였다.

창건 65돐을 맞이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력사에 대하여 불레찐은 언급하였다.

불레찐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오늘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불레찐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이밖에 불레찐은 조국소식, 국제소식들을 소개하였다.

남조선호전광들 야외기동훈련계획 공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륙군 제36보병사단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남조선강원도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이번 훈련기간 방대한 규모의 병력과 무장장비들의 기동훈련 등을 벌리려 하고있다.

최근 괴뢰군부호전광들속에서 불순한 반공화국대결망발들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련이어 감행되는 무모한 전쟁연습들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단죄

남조선의 녀성단체련합과 산하단체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를 비롯한 녀성단체들이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북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관련 해상차단, 검색훈련은 남북사이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책동이라고 단죄하였다.

미국주도하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은 그 위험성으로 하여 국제적인 론난거리가 되고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훈련이 부산항과 주변해역에서 벌어진것은 심상치 않다고 성명은 지적하고 특히 일본이 이번 군사훈련에 《자위대》를 참가시킴으로써 저들의 군국주의부활야망을 더욱 드러냈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각계 녀성단체들이 반전평화세력과 힘을 합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와 경기진보련대를 비롯한 경기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과 리명박《정권》이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관광재개회담을 늦잡는 속심은 무엇인가

금강산관광재개문제에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북남관계를 조속히 개선할 의지밑에 지난 10월 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통하여 남조선당국에 금강산관광재개문제 등을 위한 북남실무회담을 10월 15일 개성에서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검토》니 뭐니 하며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제기한 회담날자가 거의 박두해서야 확실한 날자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후에 립장을 통보》해주겠다고 하면서 회담을 뒤로 미루었다.

남조선당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북남적십자회담의 성과적보장을 위해서도 우리의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적극 나서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남적십자회담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일정 등을 《고려》하여 회담에 나서겠다는 식으로 뻗대고있다.

력사적으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금강산관광을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파탄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

1989년 1월 우리와 현대그룹사이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의정서가 처음으로 체결되였을 때 당시의 군부독재《정권》은 그것을 빛도 볼사이 없이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여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길이 열리게 되자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한나라당》패들은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관광대가의 군사비전용》이니 뭐니 시비하며 그에 도전해나섰다.

2002년 10월에 《한나라당》은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 기회에 《남북협력기금》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금지원을 사실상 중지시켰는가 하면 2003년에는 《대북송금특검》소동을 일으켜 북남협력과 금강산관광의 길을 개척한 기업가를 죽음에로까지 몰아넣었다.

《한나라당》은 2008년 권력을 다시 틀어쥐기 바쁘게 북남공동선언들을 백지화하고 대결정책을 선포하는것과 함께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중지시키고 줄곧 그 무슨 《3대조건》을 내세우면서 관광재개사업에 빗장을 질러왔다. 우리가 《3대조건》문제에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광재개노력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던 남조선당국은 최근에는 《3대조건》이 해결되더라도 《천안》호침몰사건의 《해결없이는 안된다.》며 생억지를 쓰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이루어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합의과정에도 우리의 금강산관광재개노력까지 걸고들면서 《상봉행사는 안해도 좋다.》고까지 하며 매우 불순한 립장을 드러내보이였다.

금강산관광문제를 대하는 남조선당국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놓고 과연 누가 관광재개를 회피하기 위한 오그랑수라고 비난하지 않겠는가.

이런 유치한 오그랑수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내외여론앞에서 관광재개회담제의를 차마 거부는 할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덥석 합의도 하기 싫은 남조선당국의 불편한 심기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타당성도 없는 구실로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늦잡는 속심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량에 의하여 조성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관광재개를 가로막을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 관광을 영영 막아버리자는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남조선당국이 관광재개회담을 부당한 구실로 늦잡을 리유가 없다.

금강산관광재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금강산관광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민족의 기쁨이고 통일의 희망이다.

지금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호응하여 남조선인민들도 금강산관광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지난해 8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사이에 관광재개와 관련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을 때에도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앞을 다투어 현대아산측에 관광예약을 하고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가 금강산관광재개를 지지하였었다.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돈줄》이니, 《퍼주기》니 하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관광사업을 어찌 몇푼의 돈으로 계산할수 있겠는가.

오히려 관광으로 실지 득을 보는것은 남측이다. 금강산관광중단후 현대아산이 파산지경에 이르고 그와 련관된 수십개의 업체들과 남조선강원도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있으며 남조선《국회》의원들까지도 관광중단으로 인한 경제적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관광을 시급히 재개할것을 요구한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반증이다.

지금 남조선의 민심은 물론 언론들과 전문가들까지도 금강산관광재개를 제쳐놓고 북남관계개선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현 상태에서 남조선당국이 관광재개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에 금강산관광을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관광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관광재개회담을 늦잡으면 늦잡을수록 《검토》니, 《고려》니 한것이 관광재개를 회피하기 위한 오그랑수라는것이 더욱 드러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본사기자 송영석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순간도 늦출수 없는 사업으로

평양시인민보안국에서

평양시인민보안국에서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계급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철옹성같이 수호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순간도 늦출수 없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의 확고한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적아를 옳게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습니다.》

시인민보안국에서는 인민보안원들이 우리 인민에 대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죄악에 찬 력사를 언제나 잊지 않고 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각오를 굳게 다지도록 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고있다.

올해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중앙계급교양관과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시인민보안국일군들은 참관사업이 인민보안원들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기 위한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정연학동무를 비롯한 국의 일군들은 인민보안원들의 가슴마다에 계급투쟁이 심화될수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해설해주는 한편 해당 단위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참관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각별히 힘을 넣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을 직접 겪은 체험자들과의 상봉모임, 학살만행장소들에서 진행하는 복수결의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인민보안원들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도록 하였다.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은 실효가 매우 컸다. 원쑤들의 치떨리는 학살만행을 고발하는 체험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인민보안원들의 가슴가슴을 천백배의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참관자들에서는 인민보안원들의 이런 불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사람가죽을 뒤집어쓴 야수의 무리이다.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고야말 멸적의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사수해나가겠다.

—원쑤들과 맞서싸우면 이기고 굴복하면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 피의 교훈을 심장에 새기고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가겠다.

…

참관사업이 끝난 후에도 시인민보안국일군들은 계급교양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인민보안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과 높은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인민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일군들은 착취와 압박이라는것을 말로만 들어온 우리 혁명의 3세, 4세들인 새 세대 인민보안원들을 내세워 그들이 계급교양거점들에서 보고 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치떨리는 학살만행자료들을 인민보안원들속에 해설해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들을수록 분격을 자아내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자료들은 인민보안원들속에서 응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인민보안원들은 누구나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해하며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굳건히 지켜갈 불같은 결의를 다졌다.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해하지 않고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인민보안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이 꺼질줄 모르는 불길로 활활 타번지게 하여야 하는것이다.

시인민보안국일군들은 신천박물관 일군들과 진지하게 협의토론하고 시안의 인민보안원들앞에서 박물관강사들의 계급교양이동해설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지난 8월 중순 여러차례에 걸쳐 시인민보안국에서 진행된 신천박물관 강사들의 이동해설강의는 인민보안원들의 심금을 다시금 세차게 울려주었다.

신천땅에 피묻은 군화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감행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치떨리는 학살만행을 그대로 전하는 강사들의 격분에 찬 목소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주먹을 저도모르게 불끈 틀어쥐는 인민보안원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땅에서 감행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인 만행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강사들의 이동해설강의는 인민보안원들의 심장의 피를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더욱 끓어번지게 하였다.

오늘 시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들은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요람인 사회주의제도를 한목숨바쳐 사수하며 인민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갈 철석의 맹세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김호혁

계급적자각을 높여주어

원산봉화피복공장에서

원산봉화피복공장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의 반동적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최건, 김명숙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본성과 악랄성을 잘 알아야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견결한 투쟁정신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종업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성을 보여주는 직관물들인 《미제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는 조선민족말살과 경제적략탈을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 간악한 원쑤》, 《남조선사회는 썩고 병든 사회》 등을 잘 준비하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매달 계급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작업반별로 계급교양거점참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참관이 끝난 후에는 복수결의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그들의 가슴마다에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또한 당보를 비롯하여 출판물들에 실린 계급교양자료들을 독보하는 사업, 계급교양주제의 노래보급사업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한편 해설강의에 출연하는 동무들이 생동한 자료를 많이 리용하여 해설을 깊이있게 하도록 하고있다.

새로 발굴된 자료들과 자체로 확보한 자료들을 결부하여 진행하는 해설강의를 들으며 종업원들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며 적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맹세로 가슴을 불태웠다.

특히 공장에서는 계급교양사업을 녀성로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공장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다.

나라를 잃었던탓에 온갖 치욕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온 녀성들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은 녀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착취사회가 얼마나 반인민적인 제도인가를 깊이 새겨안게 하고있다.

오늘 원산봉화피복공장의 종업원들은 높은 계급적자각과 함께 선군시대 녀성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생산에서 더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정주시계급교양관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 높여 모두가 투철한 대적관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계급교양관에서는 지난 시기 계급교양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사회주의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특히 계급교양관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실감있게 알려주기 위한 해설강의를 잘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은 새 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전시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이동해설강의를 활발히 벌리는 사업을 잘하고있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하는 강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멸적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다. 유관국들속에서 그와 관련한 론의가 벌어지고 세계여론이 여기에 주목을 돌리고있다.

국제사회계는 유관국들이 성실하고 건전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좌절과 실패, 공전만을 거듭해온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여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보장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들려오는 대조선핵공격계획과 관련한 소식들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있다.

최근 미국의 AP통신이 입수한 비밀해제된 미군사계획에 의하면 미국이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야망을 추구하여왔다고 한다.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직후인 1950년 8월 중순에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하려고 기도하였다. 그해 11월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기자회견에서 《시종 원자폭탄사용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하였으며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과 중국접경지역에 원자폭탄 30~50개를 투하할것을 계획하였다고 실토하였다.

1951년 4월 미합동참모본부는 조선전선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원자폭탄으로 《보복공격》을 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에 따라 미공군의 《B-29》전략폭격기들이 평양상공에서의 원자폭탄투하를 위한 시험비행을 하였다.

미국방성은 1953년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검토하는 과정에 《최단기간내의 승리》를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할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기도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대조선핵위협과 핵공격흉계는 전후에 보다 집요하고 로골적으로 추진되였다.

공개된 비밀문서에 의하면 조선정전협정체결직후인 1953년 8월 중순에도 미전략공군사령부는 《조선과 중국에 대량의 원자폭탄을 공중투하》하는 《작전계획 8-53》을 짜놓았다. 이 시기 미륙해공군은 저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타격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려고 광분하였다. 1969년 조선동해 상공에서 미간첩비행기 《EC-121》이 격추되였을 때에도 미국은 《15분내에 북조선비행장을 타격할수 있는 미공군 핵전술기들의 비상출격대기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대조선핵공격기도는 지나간 력사적사실로만 스쳐보낼것이 못된다. 올해 4월 미국방장관 게이쯔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것을 념두에 두고 《모든 선택안이 탁우에 있다.》고 공언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이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장기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끈질기게 시도해왔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준다.

미국은 객관적증거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게 되여있다. 우리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핵선제공격야망을 두고 지금까지 미국이 표방해온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립장에 대해 심히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적핵위협과 핵전쟁위험이 가장 큰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것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인류가 한결같이 갈망하는 핵무기없는 세계는 조선반도비핵화를 떠나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문제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헤여나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이 마치도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것처럼 그릇된 여론을 돌리고있는것이다. 그들의 론거는 조선반도핵문제가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로 하여 《산생》되였으며 따라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조선반도핵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것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무식에서 오는 심히 잘못된 견해이다.

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바다건너에서 일어난 끔찍한 핵참화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기도 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공갈은 말그대로 무시무시한 악몽이였다. 그 누구든지 적대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자기 나라 수도상공으로 핵공격을 위한 시험비행을 진행하였다는것을 상상해보라.

미국의 핵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수십만명을 무참히 살해한지 5년후에 우리 민족은 그러한 몸서리치는 악몽을 강요당하였다. 당시 악명높은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거리낌없이 폭언하였다.

미국의 무모한 대조선핵공갈과 선제공격위협은 이렇게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날로 그 위험성과 엄중성이 커졌다. 민족의 전멸을 눈을 펀히 뜨고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나라가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의 핵억제력보유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끝에 찾은 최선의 선택이고 정당방위조치이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기지화책동과 북침핵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1950년대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0년대초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내놓았으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정부성명을 통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을뿐아니라 외국의 핵무기들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엄숙한 선언도 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도 가입하였다. 미국이 핵시험전쟁인 《림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조항에 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여러차례나 받아들이고 방조도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창설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핵위협을 더욱 가증시켜왔다. 미국은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미국은 이미 중지했던 《림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하였다.

이라크사태에서 강제사찰의 강도적본질이 적라라하게 드러났지만 미국은 사찰의 미명하에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 뒤지며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군사적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오늘에 와서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가 허위날조였다는것이 밝혀졌지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피바다에 잠긴 후에 그것을 따졌댔자 도대체 무엇에 필요한가.

국제조약도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결단코 자주권을 발동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은 시기적절한 선택이고 천백번 정당한 자주권행사였다.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 의하여 1990년대에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호전적인 부쉬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문을 파기하고 우리와의 협상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지어 새 세기에 들어와 부쉬행정부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특히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극히 엄중한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안전이 경각에 이른 극심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그에 강력히 대응할수 있는 최대한의 해결책을 긴절히 요구하였다.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였다.

우리 나라가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고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으며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이 무맥하게 되고 힘의 균형이 보장되게 되였다.

우리의 핵보유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방지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수호의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핵보유조치의 정당성과 실천적의의를 확증해준다.

경험은 적들의 핵몽둥이는 자위적핵억제력으로 견제하는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적들의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한 근본방도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미국이 전횡적인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우리와의 핵합의들을 일방적으로 뒤집어엎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해온데 기인된다.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여 쌍방관계가 정상화되였더라면 조선반도핵문제가 이미전에 해결되였을것이다.

외교관출신으로 군축과 조선문제를 다루었던 일본 캐논국제연구소의 미네 요시끼는 미국의 핵공격선택이 《북조선에 핵무기개발, 획득, 보유의 구실을 주는것은 사실이다. 북조선은 국가의 생존이 위협당하고있다고 믿고있다. 때문에 그들은 자주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수 없다고 말하는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불변하다. 조선반도가 비핵화되자면 우리에 대한 외세의 핵위협이 실제적으로 제거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열쇠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핵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여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관국들은 그런 준비가 되여있지 않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6자회담재개를 위해 인내성있게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다.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제거를 떠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무의미하며 언제 가도 실현불가능하다. 미국은 이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야망을 버려야 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재개에 성실히 림해야 할것이다. 6자회담의 운명과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론 평 원

《ㅌ. ㄷ》의 전통을 이은 조선로동당

여러 나라 신문 특집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4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나이제리아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캄보쟈신문 《인민》 14일부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ㅌ. ㄷ〉와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ㅌ. ㄷ》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으며 조선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였다.

《ㅌ. ㄷ》의 강령은 조선로동당강령의 기초로, 《ㅌ. ㄷ》가 내세운 자주의 원칙은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되였다.

조선의 새 세대 혁명가들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이 시종일관 자주적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자주강국으로 존엄떨치게 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이제리아신문 《뉴 나이제리언》 11일부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ㅌ. ㄷ》가 키워낸 새 세대 전위투사들을 골간으로 창건되였다.

《ㅌ. ㄷ》성원들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김일성주석을 혁명의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오늘 《ㅌ. ㄷ》의 성원들이 지녔던 투철한 반제자주정신으로 무장한 조선로동당원들은 선렬들이 개척한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 의지에 충만되여있다.

《ㅌ. ㄷ》의 전통을 이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ㅌ. ㄷ》결성 84돐에 즈음하여 영국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가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종파주의나 사대주의, 기회주의에 물젖지 않은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로 결성되였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한 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주체의 붉은기아래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고 그 과정에 혁명적당건설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인민대중이 조직적으로 결속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ㅌ. ㄷ》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고있으며 국제주의적원칙에서 세계혁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드팀없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활동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ㅌ. ㄷ》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이 반드시 완성될것이며 조선로동당이 승리만을 거두리라는것을 확신한다.

본사기자

《인민의 심장, 인민의 지혜》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의 글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인민의 심장, 인민의 지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10월 10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를 소개하였다. 신문은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조선로동당의 골간이 육성되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당건설업적을 칭송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동지께서는 《ㅌ. ㄷ》를 결성하시여 당창건의 시초를 마련하시고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구상과 지도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수령의 당, 인민의 당으로 되고있으며 조선식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적리념으로 하는 당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신문은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의 활동에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당인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활동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조선식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현 국제정세에 비추어볼 때 가장 정당한 선군정치를 실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으며 조선은 사회주의의 보루로 굳건히 남아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창건 65돐을 맞는 조선로동당은 수십년간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의 정당성은 조선혁명의 실천에서 확증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도입성과

중국 강서성에서 지난 5년동안 농업과학기술도입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무당 평균 알곡생산량을 40여㎏ 더 높였다. 특히 벼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

세멘트공장 건설

수리아의 알레포시에 최근 새로운 세멘트공장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공장의 년간생산능력은 300만t에 달한다. 16일 이 나라의 사나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수출 증대

—이란에서 현 이란년도의 첫 6개월동안에 비원유제품수출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4.9% 증대되였다. 최근 이 나라 공업광업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캄보쟈에서 올해 첫 9개월동안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7% 증대되였다. 한편 올해 첫 9개월동안에 천 및 옷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하였다. 최근 이 나라 상업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방글라데슈에서 올해 7월에 시작된 2010-2011회계년도의 1.4분기에 옷수출액이 지난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올해 9월에 비원유제품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18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요르단에서 올해 첫 8개월동안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대되였다. 13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빈궁률 감소

앙골라에서 빈궁청산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해 나라의 빈궁률은 2002년의 63%로부터 38%로 감소되였다.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을 주요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렬강들의 패권주의적야망 배격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20일 한 담화석상에서 렬강들의 패권주의적야망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적들은 저들의 더러운 야망을 실현하려고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란을 반대하는 갖은 음모책동에 계속 매여달릴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그러나 그것은 헛된짓에 불과하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은 오만한 렬강들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이며 적들의 패권주의와 끝까지 맞서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테헤란발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 규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가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이 꾸드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회의를 벌려놓음으로써 국제적으로 꾸드스에 대한 저들의 병합정책을 인정받으려 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꾸드스를 차지하고있는것은 명백히 비법이며 유엔도 이미 성원국들에 꾸드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령유권주장을 인정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많은 나라들이 표명한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결코 법우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그는 20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허위보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이날 이스라엘신문 《에디오트 아호로노트》가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회담을 위한 새로운 요구조건들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완전한 날조로 락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군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 계속 감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5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또 들이밀어 미싸일공격을 가함으로써 4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미군의 이러한 살인만행은 현지주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에서 반정부시위

돌림감기 만연

뽈스까에서 최근 돌림감기가 만연하고있다. 10월초까지 전국적으로 이 병에 걸린 환자수는 1만 5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명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환자의 대다수는 A(H1N1)형돌림감기비루스에 감염되였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

일본에서 올해의 혹심한 무더위로 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되였다. 최근 교도통신은 정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무더위로 전국각지에서 5만 3 843명의 열사병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16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적의문을 자아내는 《테로위협》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테로위협에 대처하여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등 소동이 일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알 카에다》가 프랑스의 빠리와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도시들에 대한 대규모테로공격을 계획하고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된다. 얼마전 미정보당국은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에서 특공대방식의 테로공격계획을 적발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정보가 믿을만 하다고만 밝히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언론들은 적발된 테로공격계획이 2008년 11월 인디아의 뭄바이에서 있은 테로공격사건과 류사할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당시 뭄바이에서 무장집단은 고급호텔과 철도역, 병원 등을 습격하여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160명이상을 죽이고 32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였었다.

외신들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테로가 계획되여있다는 정보를 미정보당국이 입수하였으며 그것이 미집권자에게 전달되였지만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한편 미행정부는 《알 카에다》 등이 대중교통수단이나 관광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유럽에 가는 미국인려행자들에게 주의할것을 당부하였다.

미국이 이쯤 나오면 유럽나라들이 놀랄만도 하다.

유럽사람들은 2001년 미국에서 있은 9.11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에서의 테로방지를 위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있으며 미국의 테로공격위협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유럽의 언론들이 일시에 미국의 《테로위협》설을 받아문 사실을 놓고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영국의 한 신문은 《알 카에다》가 유럽의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 테로를 준비하고있는 징후가 포착되였다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인 테로가 자행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였다. 프랑스 빠리의 에펠탑과 노뜨르담사원,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 있는 중앙철도역과 브란덴부르그성문근처의 고급호텔 등이 테로의 표적으로 지목되고있다는 여론도 나돌았다.

이로 하여 유럽지역에 《테로경보》가 울리였던것이다. 영국정부는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에 대한 려행경계령을 내리고 국회청사 등 런던시내의 주요건물들에 대한 경계강화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무장한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빠리시내의 곳곳에 삼엄한 경계망을 폈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등 나라들에서도 류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하다면 유럽지역을 테로공포증에 몰아넣은 주요요인은 무엇인가.

대중보도수단들은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에 억류된 아프가니스탄계 도이췰란드인인 시디키에게서 얻어낸 정보에 기초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함부르그출신인 시디키는 심문에서 인디아의 뭄바이에서와 같은 테로공격을 유럽에서 단행하기 위한 계획들에 대해 《진술》하였다고 한다. 시디키는 올해 여름에 미군에 포로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정보기관 요원들의 심문을 받고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가 도이췰란드에서 심문을 받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내돌리고있는 테로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미국에 의해 과장된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영국주재 파키스탄대사이다.

그는 지난 7일 한 회견에서 미국이 유럽지역에 대한 《테로위협》설을 류포시키는것은 최근시기 무인기와 직승기를 리용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공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미군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행정부가 올해 11월의 국회중간선거를 앞두고 테로위협을 정치적으로 리용하려 하고있으며 미집권자가 어떻게 해서나 아프가니스탄전략과 병력증강에 대한 내외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정세에 주목을 돌리면서 미국이 또 다른 목적밑에 그러한 여론전을 펼수 있다는데 대해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한마디로 미행정부가 국회중간선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테로위협을 부각시키고있다는것이다. 이를 통해 미행정부가 저들이 《테로방지》에 《공헌》하고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어 《반테로》전략에 대한 내외의 지지를 그러모아 아프가니스탄《평정》을 손쉽게 실현할것을 타산하였을수 있다는것이 여론의 평이다.

전문가들은 유럽나라들에 대한 테로가능성을 무시할수는 없지만 그것이 실천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이 《테로위협》설을 대대적으로 내돌리는것을 미군무인기공습으로 파키스탄에서 민간인피해가 확대되고있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를 눅잦혀보려는 술책의 산물로 평하고있다.

이런데로 여론이 모아지면서 유럽나라들에서 미국이 내돌린 《테로위협》설이 터무니없는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현실은 미국이 의도하는것과는 다르게 번져지고있다.

도이췰란드내무상은 자국을 겨냥한 테로공격이 림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것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유럽동맹의 한 고위인물은 유럽지역에 대한 미국의 테로경보는 그 어떤 새로운 안보상황에 기초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럽동맹나라들이 테로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그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여론들은 사람들이 최근시기 유럽지역을 휩쓸고있는 테로공포증을 미국의 정치정세와 련관시켜보는것은 응당하다고 하면서 테로위협이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미국에 의해 과장된것이라는것이 까밝혀질 경우의 사태발전에 대해서도 미국은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조 택 범

ㄱ-01196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